

# 전영록·민해경 “날것의 신선함이 80년대 매력” ‘지금 거신 전화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방

마지막 화 8.36% 달성

### 신년맞이 ‘어떤가요’ 합동 콘서트서 함께 무대 “후배 길라잡이 돼 주는 ‘MSG’같은 가수 되고파”

“우리는 1980년대 생(生) ‘날 것’의 시대를 보냈어요. 오토티(불안한 음정을 보정해주는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화장도 대기실에서 셀프로 했는데요.” (민해경)

한국 대중음악이 꽃피운 1980년대, 총 천연색 스포트라이트 아래 커다란 ‘잡자리 안경’을 쓰고 열창하는 한 청춘스타가 있었다. ‘불티’나 ‘종이학’ 같은 히트곡이 나오면 TV 앞에 모여 앉은 전국의 소녀팬들은 환호했다.

비슷한 시기 1980년대 TV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맨스 장르를 선도하는 디바도 등장했다. 도회적이고 세련된 외모는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탄탄한 노래 실력에서는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바로 당대 큰 인기를 누리고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 전영록과 민해경이다. 이들은 10일 마포문화재단 주최 신년맞이 콘서트 ‘어떤가요’에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영록은 “우리는 과거 생으로 라이브하다 보니 굉장히 긴장해서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며 “나는 지금도 인이어(귀에 삽입하는 이어폰)를 끼는 것을 싫어한다. 객석 반응도 들어야 하는데 혼자

인이어를 끼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해경 역시 “그 꾸며지지 않은 데에서 나오는 신선함과 실력이 1980년대의 매력”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래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다. 요즘 같은 (성능 좋은) 마이크로는 천 곡도 부를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전영록은 1973년 MBC 드라마 ‘제3교실’에서 연기자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드라마에 삽입된 곡 ‘편지’를 부른 것을 계기로 가요계에도 발을 내디딘 후 1975년 1집 ‘나그네 길’을 시작으로 ‘불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애심’, ‘종이학’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1986~1987년 2년 연속 KBS 가요대상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고,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청춘스타로도 활약했다.

민해경은 1980년 TBC 세계가요제로 데뷔해 이듬해 발표한 2집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히트하며 인기 가수가 됐다. 초창기 발라드를 주로 부른 그는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잠미’, ‘미니스커트’, ‘보고 싶은 얼굴’ 등 댄스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신년맞이 콘서트 ‘어떤가요’에서 함께 무대에 오르는 민해경(왼쪽)·전영록. 연합뉴스

민해경은 “오랜 세월 활동하려면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변신이 필요했다”며 “높은 구두를 신고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밤새 춤을 연습했다. 처음 춤을 배울 때는 힘들었고 고민도 많았다”고 댄스곡에 도전한 계기도 전했다.

두 사람은 이번 ‘어떤가요’ 공연에서 ‘나를 잊지 말아요’(전영록)와 ‘약속은 바람처럼’(민해경)을 듀엣으로 부른다. 이 가운데 ‘약속은 바람처럼’은 전영록이 작사·작곡해 민해경이 불렀다는 인연도 있다. 전영록과 민해경은 이 밖에 세

대를 아우르는 각자의 대표곡으로도 무대에 오른다.

“‘MSG 같은 가수가 되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제가 앞장서기보다 후배들의 길라잡이냐 뒷배가 되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 이번 공연으로 관객들이 ‘맛아, 그댄 그랬지’ 하며 과거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록)

“‘어떤가요’가 신년의 첫 공연인데, 올 연말에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공연도 열고 싶어요. 올 한 해 시작과 끝이 똑같이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해경)

## ‘오징어 게임2’ 제작 비하인드 공개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에서 5인 6자 경기의 제한 시간이 5분인 이유나 무지개색 트랙이 갖는 의미 등은 무엇일까.

시청자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제작자 영상이 3일 오후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영화와 시리즈를 제작한 적은 많지만, 이처럼 한국 콘텐츠 제작기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기묘한 이야기’(미국), ‘종이의 집’(스페인) 등 대표 인기작인 경우에만 제작 영상을 만들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이야기’는 총 26분 분량의 영상이다.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제작진 미술감독, 김지용 촬영감독, 이정재, 이병헌, 공유, 임시완, 위하준 등 제작진과 배우가 나와 주요 세트장 제작 과정과 캐릭터 설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황 감독은 이 제작기에서 “작은 게임장의 사람들을 통해 ‘사회의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이야기’.

모습이 이렇게 않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는 이

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맨스 웹소설 속 캐릭터와 설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마무리됐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마지막 회 시청률은 8.6%(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종영회에서는 복수를 끝내고 사라진 백사연(유연석 분)을 흥희주(채수빈)가 내전 중인 아르간에서 찾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사연은 이름을 백유연으로 바꾸고 회주와 다시 결혼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에 이른다.

‘지금 거신 전화는’은 동명 웹소설이 원작으로, 웹소설식 캐릭터와 전개로 드라마에 맞게 잘 살려내 화제를 모았다. 계약결과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 온 순애보 등 로맨스 웹소설 클리셰가 모두 담긴 이야기지만, 간질간질한 설렘을 잘 표현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 회에서 사라진 이유를 묻는 회주에게 사연이 “나한테 별주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는 시간이 필요했어”라고 말하는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10.1%를 기록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지난 달 4주 차 TV-OTT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는 유연석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이정재를 꺾고 화제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지연 주연의 JTBC 사극 ‘옥씨 부인전’도 지난 4일 시청률 10%의 벽을 넘었다.

이민호와 공효진 주연의 우주 배경 드라마로 화제를 모은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첫 방송 시청률은 3.3%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4K 화질로 다시 보는 ‘마당을 나온 암탉’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4K 화질로 리마스터링한 버전을 오는 22일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배급사 메가박스 중앙이 2일 밝혔다.

황선미 작가가 쓴 동명의 아동 도서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양계장에 갇혀 평생 알을 낳을 운명인 암탉 암탉이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버려진 오리알을 보듬고 엄마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문소리, 유승호, 최민식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이 영화는 2011년 개봉 당시 22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최다 관객 수다.

이번 리마스터링 버전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의 원본을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최고품질의 화질로 개선하는 ‘인공지능(AI) 슈퍼스케일러’ 기술을 통해 탄생했다. 실사 영화에 가깝도록 원본의 섬세한 작화를 살렸다고 배급사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10 TV소 토크클럽(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일일드라마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2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친절한 선주씨(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1:15 모델 캘리포니아 프리미어 11:30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8:50 종근당 9:55 SBS 10 뉴스 10:30 잘 먹고 잘 사는 법 클러스 11:00 푸리가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땀땀 유치원 8:20 한글공룡 이야기 9:40 PD로그 10:30 한국여행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7:10 명탐정 피트 4 17:40 드래곤 길들이기
12:00 KBS 뉴스 12 13:00 넷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케이프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꼬박꼬박 걸어서 제주(재) 15:50 고를말 야수다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내 비밀친구 헬레(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스튜디오 K 스페셜 17:10 세상의 모든 다큐	12:00 12 MBC 뉴스 12: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3: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3:55 2시 뉴스 워친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트리트 클러스	12:00 SBS 12 뉴스 12:50 동심어울2 14:00 뉴스브리핑 16:00 국민맞춤(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먹단방	7:00 KCTV 아침 뉴스 8:10 나혼자 여행지도 9:30 신년대담-오영훈 제주도지사 10:30 KCTV스페셜 11:30 구석구석프로젝트 제주ing 12:00 남안을 고화리 13:20 신년대담-오영훈 제주도지사 15:20 살림의 왕 17:00 KCTV 17시 뉴스 17:30 KCTV 시청자대상 18:00 구석구석프로젝트 제주ing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결혼하지 맹꽁아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리인W 23:35 우리 집 뉴스이제(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20:30 동물을 흥흥하다 21:45 세차JANG 23:05 아이 러브 스포츠 23:30 별밤평사의 비밀(재)	18:05 다큐M 19:05 친절한 선주씨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폭 쉬면 다행이야 22: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JIBS 특선 해피 어 라이스 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동심어울2 23:50 내 운명 23:50 나이트리인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프리드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여행기 18:00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양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6일
	36년 내 주장대로 행하면 다툼이 생긴다. 48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칭찬하라. 먹을 것이 생긴다. 60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좋다. 72년 금전이 새어나가니 지갑 단속이 필요하고 호기심을 자제하라. 84년 정직함이 인정받으니 뒷사람의 충고·조언의 경계나 나를 발전시킨다.
	42년 전문업종은 분주히 바쁘고 거래처나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 54년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술 자체가 필요하다. 66년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이 지체되고 하자가 발생하니 관리감독 철저. 78년 미혼자는 변화가 필요. 기혼자는 투자 또는 기쁨이 찾아온다. 90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부엌에서 다툰다.
	37년 막힌 일이 서서히 풀려가니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49년 자기의사를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를 정서적 충격이 있으니 자녀 관리 철저. 73년 동료의 협조로 일이 해결되니 일시적 현상. 85년 새로운 계획 또는 직업을 갈망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38년 변동, 변화가 필요하다.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다. 50년 음식이나 오리얼이 점차 호전. 62년 매매 문서운은 좋으나 담보는 신중히 고려. 74년 부탁이 들어오면 내 힘이 약하니 부탁을 못 들어준다. 정중히 거절. 86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밀어붙이는 의지가 필요하다.
	39년 건강관리는 꾸준히. 갑작스런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금물. 51년 의견차이로 큰소리가 들리고 마음만 아프다. 63년 과욕으로 무리하면 될 일이 성사되지 못하니 계약 또는 매매시 신중을 기하라. 75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호전되니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라. 87년 부족함을 인지하고 미래 준비로 고민한다.
	40년 지출이 발생할 일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소식이 있다. 52년 직업상 변화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며 변동수가 온다. 64년 매매나 문서 계약건은 성사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76년 미혼자에게 희소식. 기혼자는 업무의 이동 변화가 있다. 88년 시험은 유리하나 재물지출이 따른다.
	41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해로 인정이나 주의. 53년 일이 호전되고 능력이 있으며 자녀와 관계된 일이 소식이 있다. 65년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가족간 불화 조짐이 보인다. 77년 부모, 시대에 뒷사람 문제로 걱정. 안부전화를 드려라. 89년 기다리는 일이 생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정하기가 어렵다.
	43년 문서 이동수가 생기고 이사, 또는 부동산 구입은 서넳간이 이득 있다. 55년 건강증이 오거나 말 실수를 하게 된다. 67년 의식주의 걱정을 덜고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생긴다. 79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라. 91년 거창한 계획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44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업종은 순탄하다. 56년 순리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 바쁘고 분주함은 매출이 되고 이윤이 된다. 68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귀가는 일찍 서둘러라. 80년 직업이 필요하고 변화, 변동을 꾀하려고 함. 92년 친구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은 오히려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
	45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논의하라. 57년 변화를 추구하거나 직업문제로 이동,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69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일이 순탄하다. 81년 금전적으로 지출이 많이 투자된다. 93년 내가 먼저 배려하고 격려를 보내면 가정이 화목하다.
	46년 시장 상인에게 기쁨이 두 배 증가. 웃으면서 상사하고 배틀면 더 큰 이득이 있다. 58년 수습할 일이 생기기나 집안에 금수가 오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70년 이동의 변화가 온다. 가정 주부는 취업하려고 동분서주 하기도 한다. 82년 마음이 여유롭지만 취업자는 분주하다. 94년 친구의 기쁜 소식을 접한다.
	47년 이사 변동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 59년 출타할 일이 생기고 직장인은 신용을 중시해야 한다. 71년 상대방과 경쟁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경쟁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 83년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일거리가 생기며 바빠지고 분주하다. 95년 이성간에 다투면 힘들어지니 관용이 필요하다.

김종상 지단(011) 작명학박사  
경기도 평곡로 105-33(010-5233-6136)